

與野 대선후보 공약

이재명 후보 병사·어르신 복지 개선

“장년수당 120만원 도입  
軍 복무 상해보험 적용”

병사 급식개선, 요양 돌봄 국가책임 강화  
“복무경험, 미래 설계 도움 되도록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을 비롯해 임기 내 60세 퇴직 이후 연간 장년수당 120만원 도입 등 어르신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변영위원회는 19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군인 상해보험 시행 ▲급식체계 개선 ▲낙후된 신병교육시설 전면 개선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 확대 ▲E-Book 포인트 제공 등을 담은 병사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선택적 모병제와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의 2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 스마트강군을 위한 5대 국방공약을 비롯해 소화형(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병사 휴대폰 통신요금 반값 인하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과 충분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 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와 보상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군 상해보험을 시행해 의료비 부담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병사 복지공약을 대독한 김용현 씨는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군사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성과는 자신의 찬란한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며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 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밝힌 어르신 7대 공약에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 모든 어르신께 평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으로부터 ‘전국 경로당회장단 1천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명단’을 전달 받고 있다. /뉴스

하게 지급 ▲소득 공백이 놓인 60대 초반 대상 장년수당 지급 ▲임기 내 6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개수 4개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일자리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 ▲불합리하게 국민연금 줄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이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점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을 약속했다.

또,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고,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 타워로 만드는 등의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어르신 공약에 담은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화형(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보 적용 등을 공약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윤석열 후보 장애인 복지 개선

“수요자 중심 예산제 도입  
복지서비스 선택권 강화”

저상버스·콜택시 확대... 이동권 향상  
“장애인에 편견·차별 단호히 거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지원 제도로인 ‘개인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 5대 장애인 공약으로 ▲저상버스·콜택시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 ▲스스로 복지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등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지연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100명 당 1대 수준으로 확대해 대기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내견 분양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도입도 소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구 구입, 재활 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의 바우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장애인 디지털훈련 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할 계획이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

고 밝혔다. 또,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장애 예술인의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영유아기 자녀가 발달지연이 나타났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줘서 각자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선대위 장애인본부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에 참석해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문현답 장애인 릴레이 정책투어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열 차례 현장을 다니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GCC FTA’ 수면 위로... 韓-이집트 산업협력 강화 추진

(걸프협력회의)

文 대통령 중동 순방

GCC 사무총장과 FTA 협상 논의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방문 이틀 차인 19일(이하 현지시간)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만난다. 사우디 공식방문 첫날(18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수소·암모니아, 제조·인프라·디지털·보건의료·건설 등 모두 13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데 이어 경제외교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예프 GCC 사무총장과 접견을 계기로, ‘한-GCC FT

A’(자유무역협정) 협상재개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사우디가 ‘한-GCC FTA 협상 재개 추진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2개월여 만에 공식적인 협상 재개 방침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GCC는 2007년 FTA 추진 합의 이후 세 차례(2008년 7월, 2009년 3월, 2009년 7월) 공식 협상을 했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GCC 측이 2010년 1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나예프 GCC 사무총장과 접견을 마친 뒤 사우디 공식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참여 중인 리야드 메트로 건설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이집트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의 이집트 공식방문은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된 공식방문 일정은 20일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부터 시작한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문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양측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다.

회담을 마치면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 문건 체결식에 함께 참석한다. 이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에 대해 알린다. 문 대통령은 회담 일정을 마친 뒤 알시시 대

통령 주최 공식 오찬에 참석해 추가적인 협력 의제도 논의한다.

이집트 공식방문 일정에도 문 대통령은 양국 기업이 전기차, IT, 교통 등 미래·친환경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며, 경제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문 대통령 공식방문 계기에 한국과 이집트 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한국에 있어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첫 FTA 추진 상대국이다.

공식방문 계기에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2022~2026) 이집트 EDCF 차관한도 10억달러 신규 설정도 공약할 예정이다. ‘룩소르-하이델 철도 현대화 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차관 계약도 문 대통령 공식방문 계기에 체결, 이집트 지속가능발전 지원에서 미래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이집트에서 출발, 22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하며 중동아(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